



대마기둥스케치 · 혼합종자를 이용한 경관조경

국내 조경기법의 다양화는 최근 많은 현장에서 시도되어지는 첫걸음인 실험에서 얻어지는 성공적인 결과들이 추도하고 있다.

물론 실험은 독창적이라기보다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국내현장에 맞게 개량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오히려 더욱 우수한 사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호에서는 경관미학을 적용한 혼합종자에 의한 대단위 경관조성의 사례를 가지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우선 경관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경관이 갖는 의미는 우선 시각적인 인지에 있다 할 것이다.

자연과 경관을 비교해 보면 자연은 인공을 배제한 개념이나 경관은 자연과 인공을 구별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경관과 풍경은 어떤가?

풍경은 비직접 측면이 강하고 경관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반드시 비직접으로 양호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경관과 환경의 차이는 무엇인가? 환경은 모든 생물을 둘러싸고 있으나 경관은 시야에 의하여 한정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경관이 장소와는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 보통 장소는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경관은 지각되어지는 그 대상이 된다.

이처럼 경관을 설명하는 의미를 종합하면 경관은 시야에 의하여 한정되어지는 지각의 대상으로만 평가된다.



○ 꽃무늬의 넓은 법면공간에 이용한 우리법면3호

즉, 자연의 일부일 수도 있고 인공의 일부일 수도 있으며 풍경의 측면까지도 내포하는 의미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이라는 초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경관의 중요성을 조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실험적 결과들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인간은 정보의 80%이상을 시각에 의하여 습득하며 인간은 본능뿐만 아니라 감성에 의하여 행동하는 동물이란 것이다.

따라서 경관은 시각의 대상이며 또한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이는 시각과 감성에 호소되어진 경관은 사람의 뇌리에 오래도록 남겨지고 훌륭한 경관은 시각에체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홍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결론 까지 이르게 된다.

이는 훌륭한 경관은 광고 및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쉽게 인지도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의 이런 장황한 설명은 경관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산물로 만들어 질 수 있고 이를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현상의 여건에 맞는 혹은 설계자의 의도대로

가장 올바르게 조성되어지는 경관이 최고의 목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유채꽃밭으로 호드러진 제주나 자운영으로 온들판을 뒤덮은 남부지역의 자운영꽃이나 평창의 메밀밭이나 고창의 보리밭 등은 농업 생산활동이라는 산물로 만들어진 경관이라 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꽃에서 여의도 공원을 보리밭으로 만든 3차원적인 벚꽃면드나, 서울시장 앞 광장의 잔디밭, 그리고 난지도 하늘공원, 그리고 한강 둔치의 코스모스가 감동의 풍경과 어우러진 경관은 그냥 보기위한 3차원적인 요소를 가진 시각적인 관점에서 경관의 즉 조정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 있다. 농업생산을 위한 산물로 그려지는 경관은 사람이 보기위하여 시각적인 대상으로서의 경관이 되었든 간에 하나의 작은 개체가 아니라 얼마되지 않는 면적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 경관공

원 혹은 경관조정의 경우는 그 대상이 매우 넓게 그려지는 따라서 사람의 시각으로 그리는 하나의 초점이나 다초점의 넓은 공간적 시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필자가 경관조경이라는 아닌 경관공원이라는 표현으로 가능한 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넓고 광활한 공간을 특색있는 시각적인 경관으로 조성하는 조정기법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다.



○ 넓은공간에 대마기둥을 이용한 경관조성의 예 - 실험

그러면 필자가 선반부에 직각한 혼합종자를 이용한 넓은 공간의 조정이 새롭게 차별화된 경관연출의 새로운 기법인가?

꼭 그렇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어지는 테마적인 조성스케이프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경관조정의 소

우리법면3호와 4호의 성공적인 경관연출의 소스는 누구나 흉내낼수 없는 차별화된 혼합종자시스템이다.

제로써 많이 시도되었지만 거의 실패를 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혼합종자가 수입되어 처음에는 많은 곳에서 적용되었지만 대부분 2년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되어 넓은 경관 조정에 이용되는 혼합종자가 한국의 새로운 경관조정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많은 현장에서 증명되었다.



○ 넓은공간에 성공적인 경관조정을 가능하게 한 우리법면4호

우리법면3리조트로 대표되는 특히 우리법면 3호와 4호의 성공적인 경관연출의 소스는 누구나 흉내낼수 없는 차별화된 혼합종자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곳부터 일본은 이미 몇 년전부터 경관공원의 조성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농촌을 아니 농업에 3차 산업화하는 현상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우리법면 3호와 4호의 골프장 현장과 도로, 하천 그리고 아파트의 법면작용이 사람들의 시각적인 시각에 의해 호평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관조경대상을 넓히는 경관공원, 테마공원의 대형화된 새로운 조경이 시도 되어지기를 원한다. 

Contents

- 현정코스 2면
- 2004제1심 집중포인트 식물 3면
- 우리꽃현정하트물품 4.5면
- 현정포인트/정고 6면
- 지상중계/활동 7면
- 특집 8면

현장 포커스

오영철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시설관리팀 대리)



본 린은 우리꽃 신물종을 적용한 현장의 담장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현장의 소리와 평가 그리고 관리담 당자가 경험으로 말하는 관리방법 등을 들어보는 코너로 고객들의 의견과 경험을 소중히 하고자 한다.

-편집자-

생육이 강한 장기개화형의 「가우라」

천안은산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만의 특성이 담긴 서비스현장을 제정해 친환경고속도로 및 쾌적한 고속도로 유지를 위해 수림대 조성뿐만이 아닌 초화류 식재로 고객들에게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 2004년 7월

로 유지관리가 쉽지 않아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식재가 가능하다. 첫째 배기기가 및 제설작업으로 인한 염화칼슘에 강해야 하고, 둘째 건조 및 습지에도 잘 견디며 병충해에 강해야 하며, 셋째 적당한 초장으로 넘어지지 않아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면 안된다. 새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고 시장조사를 한 결과 '가우라'라는 품종을 소개받고 일부구간에 식재를 하였다.

생장이 빠르며 적당한 크기(70~90cm)로 자라며 건조지에서도 잘 견디고 무엇보다 개화기간이 긴게 장점이 있다. 또한 꽃의 형태는 나비가 내려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며, 바람이 불면 코스모스처럼 한들한들거리는 것이 매력적이다.



▲ 2004년 9월

최대한 방제하고자 땅위에 부직포를 깔고 구멍을 뚫어 M2당 25본을 식재하였는데 증분하였고, 현재까지 잡초제거 1회 외에는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았다. 가우라는 한 두포기 식재하여 얻는 효과보다는 군식 또는 열식의 대면적식재가 더 어울리며 틀림없이 큰 효과를 보리라 생각한다. 올가을부터는 분홍색 및 빨강색을 띄는 품종이 새로 출시된다고 하니 더욱더 기대를 해본다.

업그레이드 고급소재 무늬종시리즈④



사초는 화분과와는 구별되는 식물로 많은 종류가 있고 줄기가 작을 이룬다. 이 번에 소개하는 물사초 골드밴드(Carex morrowii 'Gold Band')는 새로운 고급 조경소재로 일의 아름다운 초형은 우리의 춘란과 같이 선이 매우 아름답다. 특히 하양의 아름다운 무늬는 더욱 고급스러운 자태를 보여 주는 식물이다. 겨울에도 상록성으로 전체적인 초형은 단아하고 기품있는 보기도 아름다운을 가지고 있다.

줄로 한포기가 가지는 폭은 50~60cm로 중대형이고 키는 보통 30cm 정도이다. 잎이 힘이 있고 확실히 발달하여 반짝이는데 포기가 이루는 모형도 매우 기품있다. 생육이 강건하고 재배가 쉬우며 극건조지를 제외하고는 양지와 음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란다.



번식은 주로 지하경이 뿔어 새로운 포기를 이룬다. 연못의 바위주변이나 독립포기로 혹은 락가든의 소재로 혹은 음지의 차별화된 공간 연출에도 매우 뛰어난 식물이다. 열식 혹은 군식을 해도 좋고 특히 포인트식물로도 좋다. 꽃은 5월에 우리의 독사초 같은 모양의 이삭을 내는데 큰 관상적 포인트는 되지않으므로 빨리 제거해주는 것이 잎의 질감이나 포기를 키우는데 더 효과적이다.

물기가 있는 토양이나 아니면 양질의 사질토양에서 생육이 좋으며 겨울을 난 상록의 저지원은 봄이 되면 빨리 제거하여 새로운 잎이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름에는 지

Q&A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Q 락가든조성시 가장 중점을 두고 조성해야 할 것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A 먼저 바탕이 되는 물의 선택이 중요합니다.화산성 등 질감이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합니다. 그다음에는 식물소재의 선택입니다. 락가든에 맞는 소재를 선택, 화석, 화기, 기, 잎의 질감 등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식재해야 최상의 경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우리꽃 '04년 8월호 참조)

Q 일부 수종식물들은 수질개선능력이 탁월한 것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것이 있는지?

A 일반적으로 노랑꽃창포, 창포, 부들, 부레옥잠 등 대부분의 수종식물들은 수질정화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수질정화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 부레옥잠은 일전에 지적했듯이 노랑꽃 잎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양이 많아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꽃'이 올해 새로 소개한 물가자라는 물위를 기다나며 일년에 약10m이상 자랄 정도로 생장이 빠르며 줄기전체에 뿌리가 발생하여 물의 정화능력이 다른 어떤식물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우리꽃 8월호에 개광강국을 소개하는 부분에 봄부터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는지요?

A 정확하게 말하면 봄, 가을 2회 개화합니다. 주로 가을에 만개를 하며 봄에는 가을의 약60%정도 개화를 하며 꽃이 진 후 적당한크기로 순을 잘라주면 여름을 지나 9월부터 다양한 화색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라이트*

2004 관심 집중

포인트 식물

내한성이 강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하는

속근코스모스

속근코스모스(Coreopsis verticillata)는 국내 처음 소개되는 매우 주목할 만한 아름답고 화려한 조경용 소재이다. 사실 속근코스모스는 꽃과 잎이 코스모스를 흡사 닮았지만 사실은 금계국(Coreopsis)과 같은 속명을 가진 식물이다.

우리꽃이 보급하는 속근코스모스는 노랑색, 황금색, 빨강색, 흰색, 분홍색, 연분홍색 등으로 다양한데 이 모두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화색을 자랑한다.

내한성이 매우 강하고 측지 발생이 좋아 연속해서 꽃을 피우게 된다. 포기는 보통 땅속줄기로 자라면서 커지는데 일년쯤 지나면 잡초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조밀해진다.

키는 조금씩 다른데 보통 40~50cm정도이고 분홍색의 지피속근코스모스의 경우 20cm 정도이나 땅아력이 좋고 포기발음이 좋아 길가나 화단안쪽의 장기개화 유전형 식물로 매우 유리하다.

우리꽃에서 시판하는 속근코스모스는 화색이 다양한

므로 한 장소에 구별지어 심거나 군식 또는 열식을 해도 잘 어울린다.

토양은 별로 가리지 않으나 부드러운 사양질의 비옥한 장소가 좋다. 우선 관리에 가장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생육은 모두 강하고 병충해가 별로 없으므로 비료와 천정을 해주어 야한다. 꽃이 계속해서 피므로 피비를 많이 하고 꽃이 한꺼번에 피므로 꽃이 진 꼬투리가 눈에 거슬릴 수 있으므로 장마철 1회, 그리고 초가을이 시작되는 8월말쯤 다시한번 잘라주어 새순을 받으려면 더욱 좋은 화색을 볼 수 있다. 잘라주는 높이는 기존에 피었던 꼬투리만 잘라나게 하면 되므로 나무 잘게 자르면 새순이 나와 다시 꽃피는 기간이 더 걸리게 되므로 주의한다.

키는 조금씩 다른데 보통 40~50cm정도이고 분홍색의 지피속근코스모스의 경우 20cm 정도이나 땅아력이 좋고 포기발음이 좋아 길가나 화단안쪽의 장기개화 유전형 식물로 매우 유리하다.

우리꽃에서 시판하는 속근코스모스는 화색이 다양한



수종, 수변식물의 올바른 이해-연재④

향기가 좋고 무늬가 좋은 무늬창포

요즘은 많이 인식들이 되어서 별로 혼돈은 없으나 간혹 꽃창포하고 창포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 구별법을 알려드린다.

꽃창포는 붓꽃과 식물로 봄에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데 반해 창포는 일반사람들은 꽃을 거의 확인할 수 없다. 창포는 천남성로처럼 여름에 일출기의 허리춤에 작은 옥수수같은 꼬투리를 달고 있다.

창포는 천남성로 줄기에 향이 좋고 소독작용을 하는 방향성 식물로 주로 낮은 물속에서 혹은 물가에서 생육한다.

줄기는 땅의 표면을 기듯이 자라는데 줄기의 굵기는 약 2cm 정도된다. 줄기의 끝에 줄이 모여 자라게 되고 이때 잎이 나온 자리가 하나의 마디를 이루고 있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있다. 오래된 창포의 줄기는 길이가 30cm 이상 자라는데 반식은 2~3마디를 잘라 심으면 잘 자란다. 잎의 길이는 약 60~80cm 정도 자라고 반식이 뽕과 매우 좋은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창포는 물의 정화능력이 뛰어난 식물이다. 그러므로 오염된 물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는 지역에 심으면 효과적이다. 더욱이 잎이 힘이 있고 윤맥이 좋은 무늬창포의 경우 더욱 유리하다. 무늬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무늬창포로서는 드물게 생장이나 증식이 매우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식재적지는 연못주변, 수로, 물기가 있는 정원 등에 좋은데 물과 주변 지형식물과



잘 어울린다. 가장 좋은 물길이는 5~10cm 정도의 수심이면 좋다. 물빛과 주변과의 조화가 좋은 식물로 병충해는 특별히 신경쓸게 없으나 6월에 눈우렁의 부화기때 수천마리의 눈우렁 새끼들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리고 장마철에 침수가 되어 잎이 상치를 받거나 토사 등이 덮히면 잎을 자르고 새싹을 받거나 덮힌 토사를 제거 해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재배에 관한 신경을 거의 쓸필요없는 식물이다.

우리꽃 이달의 현장히트 품종

음지의 빠른지피 무늬엔젤리카

1. 음지에서도 빠른지피
2. 잎이 넓고 부드러워 연중 아름다운 경관 연출
3. 연꽃이 강건하여 음, 양지 및 건조지를 가리지 않는다.
4. 수질양수이데, 잔디주변, 생태공원의 데크 주변 등에 좋다.



다양한 화색의 자유로운 물결 개량감국

장기개화형 감국

1. 장기개화형으로 봄부터 꽃을 감상
2. 서리에도 강해 늦가을까지 화려한 꽃을 연출
3. 꽃이 크고 화색이 다양하다.
4. 가을을 화려하게 수놓을 수 있는 최고의 소재



키가 작은 최상의 아름다움 숙근왜성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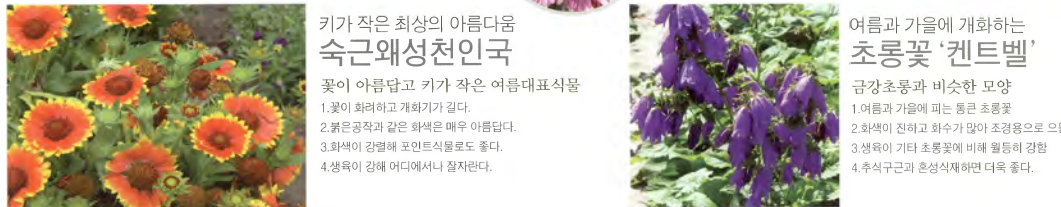
꽃이 아름답고 키가 작은 여름대표식물

1. 꽃이 화려하고 개화가 길다.
2. 붉은광작과 같은 화색은 매우 아름답다.
3. 화색이 강렬해 포인트식물로도 좋다.
4. 생육이 강해 어디에서나 잘자란다.

여름과 가을에 개화하는 초롱꽃 '켄트벨'

금강초롱과 비슷한 모양

1. 여름과 가을에 피는 통근 초롱꽃
2. 화색이 진하고 화수가 많아 조경용으로 으뜸
3. 생육이 기타 초롱꽃에 비해 월등히 강함
4. 추식구근과 혼성식재하면 더욱 좋다.



분홍의 화려한 꽃방석 분홍구절초

'우리꽃'이 개발한 신품종 구절초

1. 키가 일률적이고 부드러운 화색의 분홍색 구절초
2. 화기가 빨라 일반 구절초와 혼성시 장기개화 유도가능
3. 줄기가 단단하고 직립형이라 쓰러짐이 없다.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잔디같은 패랭이 잔디패랭이

화색이 좋고 파피력이 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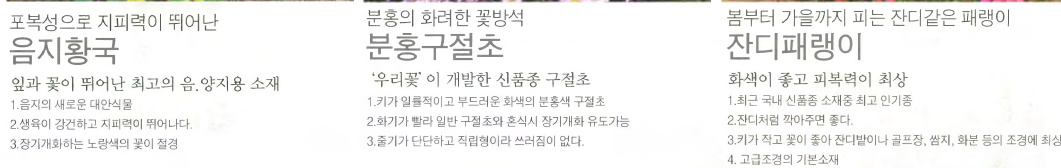
1. 최근 국내 신품종 소재 중 최고 인기종
2. 잔디처럼 짝아주면 좋다.
3. 키가 작고 꽃이 좋아 잔디밭이나 골프장, 공원, 화분 등의 조경에 최상
4. 고급조경의 기본소재



포복성으로 지피력이 뛰어난 음지황국

잎과 꽃이 뛰어난 최고의 음, 양지용 소재

1. 음지의 새로운 대안식물
2. 생육이 강건하고 지피력이 뛰어나다.
3. 장기개화하는 노랑색의 꽃이 절경



나비들의 황홀한 잔치 가우라 '버터플라이' (3품종)  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 1. 꽃이 6월부터 서리를 때까지 장기개화형 2. 대면적의 식재를 통한 경관연출에도 유리	비단의 물결 뿌리화색 아스타 '추분'  생육이 장기간 금분초형 1. 생육이 빠르고 병충해가 적다. 2. 분홍의 화색은 다화성과 함께 화상의 장점	낮에 피는 왕당맞이 숙근달맞이 '황금' (5품종)  생육이 왕성하고 재배하기 쉬운 1. 꽃이 매우 크고 화려하다. 2. 재배가 매우 용이하다.	봄부터 가을까지 스텔라원추리  키가 작은 최상의 연중 개화종 1. 꽃이 탐스럽고 화수가 많다. 2.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강렬한 빨강색 초롱꽃 초롱꽃 '채리벨'  고급스러운 이미지 연출 1. 다화성의 꽃은 매우 아름답고 탐스럽다. 2. 빨강색의 꽃은 다른 식물들과도 잘 어울린다.
재배가 좋은 함기식물 숙근꽃향유  관목성의 아름다운 숙근향유 1. 추위에 강하고 생육이 강함 2. 꽃이 화려해 울타리용으로 OK	하얀색 루드베키아 에키나 '스노우'  순백의 이국적 아름다움 1. 색다른 느낌의 조경소재 2. 생육이 강해 미관향상에도 좋다	화려한 구근식물의 재도약 크로코스미아 (5품종)  수변지의 화려한 대안식물 1. 생육이 매우 강건하고 재배가 쉽다. 2. 꽃이 매우 화려한 최고의 여름식물	모양이 좋은 키작은 옥잠 옥잠 '블루문'  골프장, 전원주택 등의 고급조경용 1. 진한 블루색 잎의 절감이 매우 뛰어나다 2. 노란색의 아름다운 꽃은 잎과 잘 어울린다.	황금색 무늬가 좋은 무늬여우꼬리그라스  생육이 강한 무늬초 1. 생육이 왕성하고 무늬가 아름다운 화본과식물 2. 군식하거나 다른식물과 어울려 포인트식물로도 좋다.
키 40cm의 미니부들 애기쭈부들  수종식물의 새로운소재 1. 도시가정의 작은면적(통)에도 부들군락 재현가능 2. 절화용으로 좋다.	잎의 무늬가 뛰어난 무늬썬주사초  음지에도 강한 화려한 무늬초 1. 내한성이 강하며 통기성에 무늬가 더욱 좋다. 2. 여름에 휴면하기 때문에 여름식물과 혼성가능.	화색이 아름다운 장기개화형 개량통풀  파스텔톤의 고급정원용 1. 6월부터 개화하여 가을까지의 장기개화형 2. 다양한 화색의 고급 정원용, 공원, 골프장용	잎과 꽃이 붉은빛을 띄는 붉은애기괘의비름  지피력이 좋은 세덤류의 신소재 1. 잎이 조밀하고 지피력이 좋은 포복성의 절의비름 2. 건조지 및 옥상녹화에 좋다.	최고의 공백, 차례를 소재 눈붉은쥬레  위에서 아래로 빨강의 식물재료 1. 국내 망팔대를 개량한 최상의 함초수종 2. 자람이 빨라 공백, 양사면, 울타리벽화 1년이면 OK

우리꽃에서 독자기술개발한 왕상록패랭이 시리즈

2004년 가을 첫출시 예약접수중

1. 블루색의 잎은 일반 상록패랭이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절감이 뛰어나다.
2. 라인을 형성하거나 건조지식재를 위한 최상의 품종군
3. 화색이 다양(빨강, 분홍, 하양)하여 구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어울려 식재해도 좋다.
4. 일반 상록패랭이의 단점인 여름에 짓무르는 현상이 전혀없는 신개념의 상록패랭이

정열적인 화색 '대륙'

순백의 아름다운 '잠이슬'

부드러운 분홍색 미소 '연지'

이유있는 가을 변신 '카멜레온'





2004년 7월 8일 SBS 8시뉴스

‘저울 서초구와 강남구를 가로 질러 흐르는 양재천, 물이 맑고 녹지관리가 잘 돼 있어 주변주민들이 즐겨 산책하는 곳에 아련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경치는 이 양귀비에 마약성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에 나섰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검찰청에 보내 마약성분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며 마약성분이 검출되면 관계자들을 처벌한다’는 요지의 방송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보여주는 어처구니가 없는 보도였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양귀비의 이미지가 꽃보다는 마약으로서 인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재천을 산책하던 주민들에 의해 신고가 되었던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문제는 보도가 나가시기까지의 과정이었다. 처음부터 그 상황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꽃이 독자개발하여 각처에서 호평을 받으며 이용되어지고 있는 우리법면 혼합종시리즈 중 우리법면4호에 한 조정원씨에 남품되어 양재천에 시공되어졌고 우리법면4호에 혼합된 26종의 종자중에 꽃양귀비가 섞여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에서의 양귀비에 대한 고정된 인

식으로 인해 시공된 여러곳에서 양재천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사실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꽃’은 우리법면4호에 사용된 양귀비가 마약성분이 없으며 세계적으로도 화훼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품종임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오해를 불식시켰고 대부분 수긍하였다. 이번건을 취재한 SBS기자도 보도가 나간 당일, 보도가 나가기 전 ‘우리꽃’에 몇차례에 걸쳐 문의를 해와 자제히 설명을 해주었으며 마찬가지로 조선일보 등 몇몇 일간지 기자들의 같은 날 문의에도 똑같이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그렇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유독 SBS만이 바로 그날 8시지침뉴스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자, 그럼 꽃양귀비는 정말로 문제의 꽃인가? 결과는 보도가 나간지 한달이 되지 않아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국과 수에서 성문의뢰결과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양귀비는 세계적으로 약100여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으나 식물체에서 알칼로이드를 만드는 것은 약용으로 이용되는 제배가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칙 제2조 3항에서도 마약성분의 양귀비는 Papavers somniferum, Papaver setigerum 말한다고 명시해두었다.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품종은 Papaver oriental, Papaver rhoeas, Papaver nudicale, Papaver alpinum 등이 있으며 이들은 세계적으로 화단용 외에 절화과 분화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꽃’에서 판매하고 있는 꽃양귀비는 바로 위 품종중 Papaver rhoeas이다. 세계적으로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국가 등 조선전진국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품종이다. 일본을 갔다 오신분들 중 조금만 관심있다면 흔히 볼 수 있었던 꽃이다. 일본은 마약에 관련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규제나 단속이 강한 나라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화훼용과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구분하여 아름다운에서도 화려한 꽃양귀비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시각적, 정서적으로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있다. 경제강국 뿐만 아니라 화해, 조정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모습이니,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꽃양귀비의 문제도 물론 회피하여 한다. 조정원씨에 민간한 현실에서 꽃양귀비 등 좋은소재를 널리 장려하여 우리시민들도 이웃민들처럼 다양한 소재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조정원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꽃’은 수년전부터 외국 의 좋은 품종을 수집하거나 자체적으로 분리, 육성 등을 통하여 많은 신품종을 선보여왔다. 꽃양귀비 또한 그러한 소재중의 하나이다. 앞으로는 우리꽃은 좋은소재의 개발을 통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장원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2004년 7월 8일 SBS 8시뉴스 해당 방송분



아생화 지피식물 식재, 이것 저것 따져봐도

우리꽃이 전문가입니다!

우리꽃이 아생화, 지피식물 전문 식재팀을 가동합니다.

우리꽃은 국내 유일의 종자, 묘종, 토양, 생식 공급업체로서 많은 재배 및 식재업체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조경한 여러번의 예로서들이기도 한 지피식물이라는 소재와 특성을 잘 알고 이론과 경험을 갖춘 우리꽃이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습니다.

● 조경용 우리꽃·생식·지피식물·묘종·토양·생식·공급업체로서
● 생식·묘종·지피식물·묘종·토양·생식·공급업체로서
● 생식·묘종·지피식물·묘종·토양·생식·공급업체로서

우리꽃주소 : 경기도 용인시 통정동 114번지 우리꽃주소 : 경기도 아천시 오가면 송곡리 696번지

상담문의 : Tel.031-634-7990, Fax.031-634-7991

전문성 비용 시공관리

아생화 종자, 묘종, 식재 한방에 OK!

우리꽃은 국내 유일의 종자, 묘종, 토양, 생식 공급업체로서 많은 재배 및 식재업체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조경한 여러번의 예로서들이기도 한 지피식물이라는 소재와 특성을 잘 알고 이론과 경험을 갖춘 우리꽃이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습니다.

● 조경용 우리꽃·생식·지피식물·묘종·토양·생식·공급업체로서
● 생식·묘종·지피식물·묘종·토양·생식·공급업체로서
● 생식·묘종·지피식물·묘종·토양·생식·공급업체로서

지상 중계

하마나코 국제 꽃박람회 관람기



우리꽃 박람회 현장

면접자주 - '우리꽃'은 직원들에게 좀더 높은 안목과 경협을 주기위한 일환으로 매년 직원들이 조정원 화훼선진국으로 전하 및 관람을 다녀온다. 이번에는 일본의 다양한 곳을 전하하온 한계종 주인 의 하마나코 국제 꽃박람회에 관한 글을 쓴다.

일본의 식물원, 원내치료가관, 박물관 등을 전하하하기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의 나라타공항으로 찾발을 내딛었다. 진다이식물공원, 보우사이노오카공원, 국제원예제라미전문학교, 하마나코 플라워파크 등을 강행군하는 일본 열정에서의 맥미는 역시 3번째날에 관한 하마나코 국제 꽃박람회였다. 박람회장은 크기는 16만평이고 행사 기간은 6개월 이라고 했다. 처음 본곳은 월드가든 설계공모전 당선작들의 공간이었다. 대부분이 일본인들 작품이었지만 영국등의 유럽작품들도 다수 있었다. 나무보다는 지피식물을 위주의 설계였고 조형물이 빠지는 경우는 없었다. 화분으로 만든 인형, 물을 뿜는 공룡, 연꽃의 물을 먹는 철사로 만든 개 등 하나 하나 그 정원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주고 있었다.

꽃의 언덕을 지나 국제교류관을 찾았다. 각국의 정원설계와 식물소재 그리고 어린이들이 만든 정원 등이 각자의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한국관도 있었다. 입구엔 나뭇잎을



하마나코 국제꽃박람회

형상해 문을 만들어 두었고 주로 소나무, 바위, 선인장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다음 들른곳은 숲의 마을, 이곳은 꽃본 곳이 있어 다시 돌아와 본곳이다. 행사장 지도를 보니 배화이라고도 되어있었다. 일본 제일의 식물결핵현! 약 5000종종 50만 그루의 꽃과 수목을 한 곳에 전시 이렇게 되어 있었다. 처음 본 곳

은 수면 식물들이었다. 대부분이 연, 수련, 부들이었지만 전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다른 꽃, 다른일로 자연스러움을 주었다. 그다음 보여준 것은 거대한 바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였다. 물이 빠져 나가는 계류가



꽃양귀비

산골짜기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폭포도 지나치지 않고 계류 사이사이에 빼곡이 나와있는 돌들도 인공적인 것 같지 않아 보였다. 폭포를 보며 행사장은 평지였는데 어디지 이런 바위를 가지고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트럭이나 크레인등으로 옮길수 있을 만한 크기 아니었다. 폭포 옆으로 돌아가자 양열으로 바위 절벽이 서 있었다. 높이는 2.5M 길이는 30M정도 되는 바위 사이로 난 길이었다. 끝자락에는 나무가 길게 우거져 있고 나무아래에는 고사리 등 습하고 음지를 좋아하는 식물들이 심겨져 있었다. 그길을 지나가고 있을때 '취~' 하고 스텝 뿜는 소리가 들렸다. 물을 관계 모양으로 뿜어서 물을 주는 모양이었다. 절벽이 끝남때쯤 랜스레 바위를 건드려 보았다. 그런데 촉감이 이상했다. 그냥과는 바위엔 좀더 다가서서 굽어 보니 바위가 아니었다. 가지고 있는 동전으로 굽어 보니 콘크리트로 된 것이었다. 지금까지 오면서 본 바위가 다 콘크리트로 되어있었던 것이다. 바로 앞에서 보아도 그것이 바위인지 콘크리트인지 모를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물을 흘러 보내 이끼가 끼도록하고 흙을 파 바위가 갈라진 면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굉장한 손재주였다. 가까이 서서도 눈으로는 구별이 안될정도다. 한국에서도 인공폭포를 보았지만 이렇게 정교한 것은 없었다.

그다음 나온곳이 Grass 가든이었다. 식물들을 보니 모닝라이트, 회피 등 '우리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류가 많았다. '우리꽃'이 가지고 있는 여러 품종들 중 많은 것이 여기 일본의 식물원과 하마나코 국제 꽃박람회에서도 볼 수 있는 품종들이었다. 또 단순히 형태가 좋거나 일에 부딪히 들어가는 것 외에도 일자체의 색과 질감이 좋은 것 조경에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옆으로는 세뽀모로 하단을 조성한 것이 보였다. 제주도 들뜰을 닮은것도 같고 성벽을 본만것같아 보

이기도 했다. 마흔여섯개의 다른 세뽀를 이용해서 문양을 만들어 놓았는데, 주황, 초록, 블루 등 각기의 색과 엄지크기만한 포트,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3지 겹은 비닐 포트까지 크기와 색을 달리 하여 포트 그대로 배치해 해 놓았다. 그러면 문양의 형태가 형용어지지 않고 죽은 것을 쉽게 교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포트 자체의 색이 세뽀 고우색의 뒷배경이 되어 더



꽃양귀비

옥 돌보이게 했다. 포트 그대로 배치해 놓은 것은 전시장 곳곳에 있었는데, 6개월 동안 행사를 하며 식물들 5번 교체 한다고 했다. 포트 그대로 식물들을 배치하면서 포트가 눈에 띄지 않게 조정자재 또는 일이 무성한 꽃과 식물들 이용해 대체 놓았다.

그 외에도 화가 모네의 '수련'에 나오는 정원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꽃의 미술관, 24개국의 정원을 소개한 국제정원, 파란 장미가 있는 꽃과 수목의 미래관이 볼만 했다.

이번 여행에서 내가 본 것은 조정원 추세가 아닌가 한다. 계절에 따라 피는 아름다운 꽃은 물론 일들의 변신이 그것이다. 박람회장임구의 감은색 메꽃들, 보라색 연꽃, 단풍의 사조, 은색의 색은 꽃이 있을때도 색을 더 얹어나 아름답고 주변과 조화를 같이해주는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꽃이 조정원씨 사업을 확대합니다!

우리꽃은 우리법면 혼합종시리즈의 확대 적용에 발맞추어 녹화용 부자재들 시작으로 선진 자재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로 녹화용 법면 부자재인 코아비트, 세스, 안가비 등 부자재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고객들의 원포인트 구매를 돕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제1회 우리조경인상'에 대상 6개업체, 우수상 10개업체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 *대상 (5박6일간의 중국연수) 뉴스포팅빌트리클럽, (주)수목, 중부컨트리클럽, 천안신산고속도로(주), 춘천컨트리클럽, 파인밸리컨트리클럽
- *우수상 (50만원상당의 우리꽃 상품권) 건국조경, 뉴코리아컨트리클럽, 비보꽃밭식물원, 삼지조경, 새우리, 양지파인컨트리클럽, 원우, 전주수림조경, 태영컨트리클럽, 평창건설(가나다순)

특집

연재 - ②

첼시 플라워쇼 참관기

글 / 임종택

왜 첼시인가 ?

첼시 쇼는 영국 런던 Thames강 변에 있는 Royal Hospital에서 열린다. 필자가 3시 30분 입장인데 2시쯤 와보니 벌써 많은 사람이 입구 앞에서 양표를 구하려거나 자신의 입장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3시쯤 되니 감당할수 없을 만큼의 인파가 이곳에서 몰려들어 아주라장이 되고 마는데, 사람에 막 부딪히면서 입장했는데 온통 거리에 사람이 좌악 깔려 있어서 숨도 제대로 못쉴정도였다. 약 18만명의 입장객이 예상되는 첼시 플라워쇼. 올해는 RHS200주년 기념이 되는 해라서 그런지 좀더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첼시쇼도 벌써 100주년이 다되어 간다. 주로 플라워쇼가 이른봄에 개최가 되어 봄과 여름에 가든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3월4월에 개최가 되어 실내에서 주로 진행했던 센터가데에서 열리는 데 비하여 첼시는 야외에서 개최가 된다. 야외에서 개최가 되는 만큼 공간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래서 더 다양한 디자인이 연출될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우천시나 악천후시에는 불이익을 얻을 수가

을 증폭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여왕이 이곳에 와서 관람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거리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었다. 디스플레이된 쇼 가든을 조그만 한 스페이스에 집약적인 플랜팅과 색깔의 변화와 곡선을 이용해 small space를 최대한 크게 보이게 하였는데 색깔은 페인트를 칠한것이지 아니라, 이런 색깔의 들들을 특별 화화 처리해서 팔고 있는 곳이 런던 근교에 있다고 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플라워쇼에는 4-5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캐나다의 대표적인 쇼인 Landscape Ontario와 미국 최대인 Philadelphia Flower Show등



가장 관심을 가졌던 쇼가든인 Diarmuid Gavin의 A Colourful Suburban Eden이란 작품인데 이 젊은 디자이너는 독특한 생가념적:는 아이디어 디자이너로 유명한데 아직 꿈을 지원해 줄만한 스폰서를 찾지 못해 고생하다가 몇주전에야 스폰서를 구하고 쇼 오픈 몇시간 전에야 완성할수 있다고 한다.

첼시쇼에서 주본 제작으로 큰 시구름을 만들었으며 제작비만도 30여만불 정도가 들었다고...



도시정원, 좁은 공간을 이용한 심플하고 도식적인 디자인으로 지 비용으로 설치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나 조형물과 벽에 그려진 그림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있다. 150여개의 부스가 특별 대전시관안에 전시가 되어있고, 실외에는 각종 원에 관련 장비라는가 소제, 책등을 파는 부스가 전시되어있을 뿐만아니라, 각종 각색의 주택 정원, 옥상 정원, 도심 정원, 별장정원등 카테고리 별로 선택된 디자인들이 설치되어 관람객들을 맞이 하고 있었다. BBC TV라든가 각종 라디오 코너에서는 첼시플라워쇼에 관한 프로그램을 몇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다루어 어떤 디자인이 이만해에 선발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특이한 점과 디자이너들이 인터뷰등을 담으면서 세인들의 관심

소는 단연 으뜸이 아닐 수 없다. 규모면에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섬세함이라든지, 다양성, 선별과 장등을 보아도 100여년 전통의 첼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지(본인이 가본곳 중에서도 인지도 면에서), 1년전부터 작업에 들어가며 Selection Committee에 제출을 해서 각분야별로 3-4개 정도의 작품만 선정해서 전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 수치로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It is very competitive to get picked(선발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라고 한 디자이너가 이야기 해 주었다. BBC에

big쇼와 여러개의 각자 지 단체에서 하는 요만 조만한 행사 등 눈으로 볼 기회들이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중에서 하나라도 간파해서는 안될만큼 그 나름대로의 정성과 기술, 예술등이 잘 나타나있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지? 라는 탄생을 자아내게 만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첼시

서 준비되는 과정을 방송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각 신문사나 기타 방송매체에서 홍보를 하는 동안 이 플라워쇼는 런던의, 아니 영국과 세계 원예인들의 하나의 문화 행사가 자리 매김해나가는 느낌을 받는다. 영국인들의 원예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는데, 그 생활속의 원예의 비중과 수준이 그런 좋은 쇼와 아름다운 가든들을 탄생시키지 않았나 싶다. ☺

신소재-옥상용식물 ④



겨울 적색의 상록단풍, 아름다운 꽃무리 왕상록패랭이 "카멜레온"

상록성의 패랭이는 이제 우리 주변의 친근한 조경소재가 되었다. 특히 우리꽃이 시리즈로 선보이고 있는 왕상록패랭이 시리즈는 국내뿐아니라 유럽의 관계자들도 흥미를 지켜보는 신종종들이다. 이번에는 겨울에 잎이 붉게 변하는 왕상록패랭이 '카멜레온'을 소개하고자 한다.

굳이 옥상용으로만 소개돼있을 것은 아니지만 내한성이 강하고 강한 햇빛과 건조에 잘 적응이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옥상용 소재로서 매우 주목할 만한 식물이다. 카멜레온은 9월에 사들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잎의 코산토필의 양을 증가시켜 붉은색으로 단풍이 든다. 그러나 내한성이 강해 겨울동안에도 상한한 단풍의 상록을 보다가 봄이되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아름다운 꽃을 한껏 피우며 잎색이 지그스런데그랬나 식으로서 불루색의 잎으로 변한다. 따라서 겨울에 상록의 문양을 표현하거나 하는 식물로 주목할 만하며 관리는 일반적인 왕상록패랭이와 동일하다. ☺



여러분들의 자발적 구독요금 후원을 기다립니다.

지정된 계좌에 금액에 상관없이 구독/후원을 하시면
 농담 : 235100-56-071562

(예금주 : 박경영(우리꽃 대표 및 소식지 발행인))

(현재저적금 : 57만원)

